

## 2011년 꼭 알아야 할 7가지 금융 상식

2011년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재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다른 때보다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 <감정평가>에서는 2011년의 안정적인 재무 계획을 위해 꼭 알아야 할 7가지 금융 상식을 소개한다.

### 1 저축, 금리보다 '기간'을 신경 써라

미래의 금리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시장에서 금리가 언제 상승하고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할 때에는 장기, 단기 두 가지로 구분해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금리 상승기에는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거나 변동금리형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목돈이 드는 내 집 마련의 경우처럼 3년 이상의 장기로 예금을 운용하면 고금리 이익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 2 대출 조건은 변화 한다

대출 조건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한번 결정되었다고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임금 인상 등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높아진 경우 신용평가를 다시 받아 금리인하 여지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대출 상환 능력이 높아지게 되면 신용 등급 또한 높아 질 수가 있고, 신용 등급이 높아지면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 만기 연장 시에도 금융기관과 금리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함께 신용 평가를 받은 후 신용 등급이 좋은 쪽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둘 중 누가 신용 등급이 낮고 높고 잘 모른다면 개인 신용 정보 회사를 이용해서 확인 후에 대출을 받으면 된다.

### 3 카드 돌려 막기, 사채보다 무섭다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회원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사용되는데, '뭘,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일단 현금서비스를 받고 월급이 나오면 갚으면 되지'라는 식의 막연한 생각에 경계심이 느슨해져 갚기가 쉽지 않다. 어느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금융연체자)의 대부분이 신용카드 돌려 막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사람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카드 돌려 막기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이자로 인해 오히려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카드 현금서비스는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 4 마이너스 대출, 부담 작다고 방심해선 안된다

마이너스 대출은 현금서비스보다는 이자 부담이 낮아 비교적 자주 쓰게 되는 대출이다. 마이너스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받는 대출로, 일반 통장에 한도를 부여해서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한도까지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 대출이다. 즉 한도를 1,000만 원으로 한 경우엔 -1,000만 원까지 출금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대출은 자유 입출금 방식의 상환으로 대출 한도금 내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는 현금서비스와 달리 심리적 부담이 작아 대출금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 만들더라도 대출 한도를 최소화하며, 사용 용도 또한 '비상시'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 5 주식 투자 '역수의 법칙', 잃기가 더 쉽다

주식시장이 20년 전보다는 분명히 올랐는데 왜 대다수가 손해를 볼까? 이는 '역수의 법칙'이라는 수학의 기초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만일,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50%로 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다시 50%만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50%의 역수인 2배, 즉 100%가 올라야 한다. 그러므로 위험 관리를 확고하게 정립하고 선불리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6 장기 금융 상품 가입했다 발 묶일 수도

금융기관들은 예금을 유치할 때에는 자금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예금 금리를 높게 제시하지만, 유치한 후에는 이전만큼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 특히 장기 예금 상품의 경우 초기의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낮아진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중도 해약 손해가 큰 예금주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더 나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융 상품에 가입하기 보다는 금리가 낮아도 단기 금융 상품을 이용해 보는 게 좋다. 물론,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을 비교해 본 뒤 이용해야 한다.

### 7 대출부터 갚아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속되게 말해, 금융기관의 '봉'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은행은 고객이 예금한 돈을 대출에 사용해 그 이자로 고객의 예금 금리를 충당하고 수익을 내는 구조이므로, 대출과 예금을 동시에 하는 것은 은행의 돈을 빌려주지만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출이 있다면 대출 금리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고 안정적인 투자처가 없는 한,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실질적으로 '돈 버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